

## 향기로운 예물

♣ **십일조헌금** 기업 085-056206-04-030(대한예수교장로회 성령교회)

강영성(신화순), 강은미, 김규찬(최효자), 김병율(이영숙), 김정대(유은자), 김종진(한안나), 김춘화, 박근자, 박종삼(이명원), 방석대(차옥자), 윤병용(백남실), 이근자, 이명희, 이미영, 이한철(박희영), 이희재, 임형문(박금옥), 정목순, 채희준(황영옥), 천세력(염영분), 최기훈(정계숙), 최상걸, 최성현(윤정자), 최성환, 최정희, 한우희(신정선).

♣ **선교헌금** 기업 085-056206-04-086(대한예수교장로회 성령교회)

이진우(최선미), 강영성(신화순), 강준식(김정연B), 김경엽, 김규찬, 김병율(이영숙), 김춘화, 김태수, 박금엽, 박정현, 박진숙, 박희영, 방석대, 백남실, 손정아, 유은자, 유정현, 유형도, 유호근(손명화), 윤영준, 윤조훈(이연숙), 윤혜전, 이근자, 이미영, 이소연, 이춘취, 이한철, 정목순, 채명엽, 최성환, 최정희, 황성연.

### ♣ 감사헌금

윤희진(최유경), 김명숙, 김병율(이영숙), 김정자, 박부웅(최귀남), 박종삼(이명원), 박지순, 박진숙, 방석대(차옥자), 백남실, 신경숙, 신영신, 오영순, 유은자, 이미영, 이상규, 이소연, 이춘호, 이춘취, 정기성(심순옥), 정영심, 정목순, 조성호(이주하), 채명엽, 홍금옥, 무 명.

### ♣ 일천번제헌금

이진우, 윤희진, 이필래, 김민성, 김민혁, 김정훈, 김지훈, 김청숙, 김춘화, 민옥희, 박복례, 박은숙, 박정숙, 박희영, 배병찬, 서재희, 송백현, 신지현, 신현진, 안지영, 양영옥, 양일석, 이강우, 이경자, 이노을, 이설아, 이옥남, 이인숙, 정목순, 주성탁, 최봉순, 최선미, 황영옥, 무 명.

## 주간 성경연구 • 주일 5장, 평일 3장씩 읽으세요. •

2014년 제 52주 : 요한계시록 21장 - 창세기 9장			
주 일	요한계시록 21 - 22장, 시편 1 - 3편		
월요일	시편 4 - 6편	목요일	창세기 1 - 3장
화요일	시편 7 - 9편	금요일	창세기 4 - 6장
수요일	시편 10 - 12편	토요일	창세기 7 - 9장

시무장로	이태일 정기성 윤조훈 방석대 이일로 천세력 윤병호 강영성 김병율 최기훈 윤정호 배경철 임만순		
은퇴장로	오만식 방현옥 장명원 이해석 정공식 이원가 문영원		
교 역 자	부 목 사	윤희진	
	강 도 사	김성종	
	전 도 사	이필래	
	교육전도사	이송이, 최유경	
찬 양 대	지 위 자	활 렬 루 야 : 김한나 호 산 나 : 김안나 시 온 · 에 덴 : 최원지 엔 젤 : 이난수	
	반 주 자	오르간	심혜윤
		피아노	강민주 김상훈 김미희 유광희 이주하 정혜지
		클라리넷	박진숙 이난수
		플루트	김민지
솔 리 스톱	김안나 고광훈		
선 교 사	파송선교사	태 국: 김정숙 이집트: 김신숙 수리남: 안석철 이성옥 A X 국: 김해월 A X 국: 박동권 김명화 A X 국: 이분옥	
	협력선교사	태 국: 박명성 정세미 태 국: 박경환 이순연 멕시코: 김홍기 A M A : 조동진	
협 력 교 회	제주 대광장로교회		
협 력 단 체	서울남노회 목양선교회, 소망교도소, 영등포시찰회 용정선교회		



2014. 12. 21 주일 예배 설교

평화(Pax)? 평화(εἰρήνευω)!

본문: 누가복음 2장 14절

설교 : 이진우 목사

성경에서 “평화”라는 단어는 두 가지 단어로 쓰고 있음을 봅니다. 먼저 “팍스”라는 단어가 있고, “샌름, 혹은 에이레네”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구절은 당시 로마 황제를 찬양하기 위하여 만든 찬양 어구입니다. 그 문구에 쓰이는 평화라는 단어는 “팍스”인데 오늘 본문에서 천사들이 부르는 찬양에서의 평화는 “에이레네”입니다. 아마도 천사들이 당시 가 장 무식하고 비천했던 목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리기 위해서 가장 잘 알려진 노래로 쉽게 찬양하며 알렸을 것입니다. “팍스”의 평화는 물리적인 평화입니다. 즉 억압받고 고통 속에 있는 자, 물질이나 건강, 혹은 외부 세력의 침략을 통해서 자유함을 잃은 자들에게 평화를 주는 의미입니다. 성경에 천사들은 “팍스”의 평화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에이레네”의 평화를 알리고 있습니다. 이 “에이레네”는 “평화, 어우러짐, 화목함, 은혜”를 뜻하는 말로 구약의 “샌름”과 같은 뜻입니다. 즉 우리 주님의 오심은 세상 가운데 억압받으며 물리적인 평화를 주시기 위함 이 아니라 더 근본적인 평화 즉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고, 화목하며, 은혜로 기쁨을 주시기 위 함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은 “팍스”의 평화가 아니라 “에이레네”의 참 평화를 누리길 축원합니 다. 비록 물질적으로, 건강이 허락하지 않아도, 억압받고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럼 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 가운데 “에이레네”의 평화를 더하셔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주며, 만왕의 왕 되시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삶의 문제를 해결하사 반드시 복주시고 은혜 주시며 그 기쁨을 더하실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참 된 평화를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 다. 그렇다면 에이레네의 평화 참 샌름의 평화를 얻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1. 주의 영광이 우리의 삶 가운데 비추어야 합니다.

1) 본문에서 9절에서는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 는지라.”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 가운데 비추실 때 악한 어둠의 세력은 물러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화가 임하게 됩니다. 주님의 영광이 함께 하실 때 인생의 대적이 사라지며 문제가 해결 받게 되는 것입니다(출 15:6).

2) 이러한 주의 영광이 우리 삶 가운데 비추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들 이요, 죄악의 자녀요 어둠의 자녀인 우리를 먼저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 은혜의 빛을 비추시고 영 광의 빛을 비추사 그 은혜로 우리를 살게 하시고 은혜로 만족함을 얻게 하셨습니다.

3) 성도는 바로 그 은혜를 바로 알고 주의 영광이 우리의 삶 가운데 비추질 수 있도록 더욱 힘써 주를 바라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참 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2.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1) 본문 10절에서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했습니다. 천사의 소리가 들려오며 찬양의 영광의 소리가 들려올 때 들 지 못하는 어두운 귀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어둡고 듣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잠자는 자의 귀입니다.

2) 8절에서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 떼를 지키더니”라 했습니다. 그들은 낮에 도 고단한 하루를 보냈고 이제 그 밤에도 고단한 몸을 이끌고 양들 옆에서 쪽 잠을 자며 누웠을 그 때 천사의 소리를 듣습니다. 영광의 소리를 듣습니다. 그 소리로 말미암아 소망과 평화의 참된 기쁨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3) 오늘날 참 많은 사람의 소리 세상의 소리가 있습니다. 성도는 주님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참 행복한 소리 복된 소리 평화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고 게으름에서 일 어나며 어둔 귀가 밝히 열려 참된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3. 듣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평화의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1) 본문 15절에서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라 했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했습니다. 아무리 많이 들어도 한번 보는 것만 못합니다.

2) 평화의 왕이요 만유의 주님이 오심을 아무리 많이 들어도 직접 만나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 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랑 관계가 없는 그저 이야기일 뿐입니다. 주님의 오심은 나와 관계없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은혜요 평화요 기쁨입니다. 성도는 바로 이러한 은혜를 누리고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 이제 듣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3) 목자들은 그 밤에 자신들에게 알리신 이 일을 확인하고자 예수님을 찾아 나섭니다. 그 캄캄한 밤 즉각적인 순종과 행함으로 그들에게는 참 된 평화가 이루어지고 비록 그들의 삶이 변화된 것 은 아니지만 여전히 양을 지키는 목자로 일꾼으로 고단한 삶을 살아야 하지만 아기 예수를 만난 그들은 참 평화를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그럼에도 불구 하고 찬양하고 그리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기뻐하며 구원의 주님께 영광 돌리며 비록 십자가를 지 고 거친 들을 지나는 인생길이라 할지라도 참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SINCE 1975-2014

No. 40 - 52

## 대한예수교장로회

# 성 현 교 회

Sung - Hyeon Presbyterian Church

표어: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시편 81편 10절)

목표: 1.진리 파수 2.천국일꾼 양성 3.민족 복음화 4.세계 선교



담 임 목 사 Senior Pastor	이 진 우 Yee, Jin Woo
--------------------------	-----------------------

- 152-090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33 마길18(개봉동)
- 18Gyeongin-ro 33Ma-gil, Guro-gu, Seoul, Korea
- 교회사무실 : 2613-2080 / 2683-2080 / 070-8658-2080
- 팩 스 : 2689-1230
- 홈 페 이 지 : [www.sunghyeon.or.kr](http://www.sunghyeon.or.kr)

1월 순서	1 부		2 부		찬양예배		수요기도회
	기도	기도	성경봉독	사회	기도	기도	기도
1주 (4일)	박부웅 집사	이태일 장로	송백현 권사	담임목사님	김병욱 장로	송백현 권사	김옥자 권사
2주(11일)	윤영준 집사	정기성 장로	김옥자 권사	이태일 장로	박부웅 집사	김옥자 권사	김옥자 권사
3주(18일)	박권제 집사	윤조훈 장로	곽정순 권사	정기성 장로	윤영준 집사	곽정순 권사	곽정순 권사
4주(25일)	최상걸 집사	이일로 장로	박복순 권사	윤조훈 장로	박권제 집사	박복순 권사	박복순 권사
예배안내	이태일 정기성 윤조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